



이가림작 '동이위에 뽕' ↑

▶ 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 이가림 결과전

# 화려한 색 없이 최소한의 '선'으로

이작가 "내 본질에 가까워"  
14일부터 20일까지 전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이 운영하는 완주 창작스튜디오에서 오는 14~20일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 이가림 결과전'이 열린다. 전시는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했던 입주 작가들의 창작활동 결과물을 보고 및 공개하는 자리로, 이가림 미술가는 지난해 8월부터 창작스튜디오에서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이가림 미술가는 그간 미소 속에 감춰진 사람들의 숨겨진 감정을 독특한 언어로 재해석한 '페이스' 연작을 선보여 왔다. 사람들의 다양한 숨겨진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오일 파스텔이나 스크래치 등 초·중등학교에서 주로 다루는 재료와 기법을 활용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색 보다는 선 드로잉을 중시

한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드로잉 작업은 최소화된 작품들을 만나게 한다면서, 이는 현재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큰 발판이 돼 주었다"고 했다. 그는 "드로잉 작업에만 몰두했던 시기가 있었다. 이유는 바스키아의 영향을 받아내고자 몇 년 동안은 색을 쓰지 않았다"는 다짐과 드로잉 작업이 중심이 되는 개인전을 갖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고 했다. "몇 년간 색을 쓰지 않는 드로잉 작업을 했지만 목표했던 드로잉이 중심이 된 개인전은 열지 못했다. 10년이 지난 지금이야 목표했던 그 개인전을 열고자 한다"며 "화려한 색을 제외하고 최소한의 선만으로 표현한 작품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어쩌면 나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싶다"고 전시 소감을 밝혔다. 개막식은 14일 오후 3시 완주군 상관면에 위치한 창작스튜디오(구, 상관면사무소)에서 열린다. /정혜은 기자



'전북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선정·전시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권)은 정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에 대한 선정·전시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은 도를 대표하는 우수 관광기념품을 선정·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국의 아이치 홍보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재단은 2017년부터 도내 개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민·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 등 매년 200여종의 관광상품 발굴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5월 2일~6일 30일 진행된 올해 공모전에는 총 105개 작품이 출품됐다. 재단은 도민 및 관광객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1차 심사(7월 15~18일)를 관광기념품 관내단에서 실시한다. 이어 2차 전반기 심사(17일), 3차 선정영향에 대한 현장조사(18~20일)를 거쳐, 오는 20일 최종 선정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상품에는 정라북도관광기념품 인증마크 부여, 생산 장려금 지원(각 20만원), 홍보물 제작, 관광기념품 박람회 참가, 특관 행사 및 관광기념품 판매관 입점 등 홍보·유통 및 판매를 지원한다. 최종작은 21~27일 재단 내 1층 전시관(기스락)에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이 정라북도 기념품 상점의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지역기반 작가와 업체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유도하는 물론 선정작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관광기념품의 판매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했다. /정혜은 기자

군산시립예술단, 하반기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열어

## 전주국제영화제 월드 프리미어 '초행' 로카르노 진출

군산시립예술단(단장 한준수 부시장은)은 오는 18일 무녀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10회에 걸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달림·희망스물·기암시암·행복나눔 콘서트'를 주제로, 일대(8월 3일), 근대(서지물관(8월12~13일), 대성초(9월 14일), 육봉초(9월 19일), 공군38장대(10월 중) 등 시화복지시설과 학교·기업체 및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열리며 교향악단의 오케스트라 연주와 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곡을 들려준다. 올 상반기에는 중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선유도 초·중학교 등 9개 학교에서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희망스물 콘서트를 진행했고,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정다운 요양원 등지에서 행복나눔 콘서트를 진행해 시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됐다. 또한 현대중공업 준차 공개대회와 지방행정연수원 초청공연, 공당보리축제, 바다의 날 등 각종 행사와 기념식에서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군산시립예술단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군산·질 현 기자

영화제 '현재의 감독' 경쟁 부문에 선정돼 '초행'(감독 김태환)이 제70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의 메인 경쟁 부문 중 하나인 '현재의 감독' 부문에 진출했다. 12일(현지 시간)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측은 '초행'이 '현재의 감독' 경쟁 부문에 선정되었음을 밝혔다. '현재의 감독' 부문은 촉망받는 신예 감독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장편영화를 대상으로 한 신인 경쟁 부문.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 '초행'은 영화 '열광기행'으로 탁월한 호드무비를 선보인 김태환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로 동거 6년차 자들이 양가 부모들을 찾아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는 불안한 가족의 이야기, 외면할 수도 끌어안을 수도 없는 가족의 역설을 호드무비 형식으로 그려낸다. 최근 총무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매우 감성적이고 조현상이 주연을 맡아 현실적이면서도 진정성 있는 연기를 펼쳤다. /정혜은 기자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 진출한 '초행'의 한 장면.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로카르노국제영화제는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새로운 장르의 발견을 추구하는 영화제로, 독창적인 작품과 미학적으로 훌륭한 급진적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유럽 최고 권위의 영화제 중 하나다. /정혜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공연 & 전시

순창 옥천미술관서 '익숙하고 낯선 풍경' 전시회

순창옥천미술관에서 '익숙하고 낯선 풍경'을 주제로 18장의 회화 전시회가 8월 11일까지 진행돼 군민들을 수준 높고 개성 있는 회화의 세계로 인도했다. 이번 작품 전시회는 전북 도립미술관과 협력해 찾아가는 작은미술관 사업으로 진행된다. 익숙하고 낯선 풍경전은 친숙한 자연환경과 인물을 작가가 순수함과 예리함으로 재해석해 개성의 시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구성했다. 이용우 화백의 산수도, 문복을 화백의 삶의 소리, 이동성 화백의 구이, 나상목 화백의 '노인도' 등이 대표작이다. 군관계자는 이번 작품전시회는 "군민들이 평소 볼 수 없었던 개성의 시각의 작품들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철·이연필 기자





扶來滿福-부안에 오시면 복 받습니다!

# “핫(hot) 뜨거운 여름을 부탁해!! 축복의 땅 부안아”

부안해수욕장 개장기간 : 7. 1 ~ 8. 15(46일간)



위도해수욕장



고서로해수욕장



거포해수욕장



오향해수욕장

